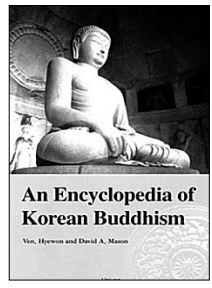


# 570개 키워드 통해 본 한국 불교문화

An Encyclopedia of Korean Buddhism(한국불교 영어백과사전)



헤원스님 & 데이비드 A 공저  
운주사 펴냄  
3만5천원

한국불교의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는 최초의 영문 한국불교 백과사전이다. 1,600년 한국불교의 모습을 570여 개의 표제어와 180여 컷의 사진에 담았다. 외국인 눈높이에 맞춰 항목을 선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우리나라를 찾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실은 부실하다. 얼마 전 조사 보고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여행의 가장 큰 문제는 불거러와 체험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쇼핑밖에 할 게 없다는 비판이었다. 한마디로 고급문화의 부재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만 전 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고급문화가 분명히 존재한다. 제대로 포장

해서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다. 대표적인 예가 템플스테이다. 템플스테이는 외국인에게 가장 인상적인,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 불교가 가진 잠재력중 빗살의 일각일 뿐이다. 이렇게 한류를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 불교문화의 전통을 소개하는 자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불교문화를 외국인에게 제대로 정리해서 소개할 자료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책을 기획 편찬했다. 이 사전은 한국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570여 개의 키워드와 180여 컷의 사진 자료를 통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즉 한국불교가 가진 유·무형 유산 및 자신들에 대해 가능한 평이하게, 외국인 눈높이에 맞게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한국 불교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이 책은 'dictionary' 가 아닌 일종의 백과사전, 즉 'ency-clopedia' 라고 이름 붙인 이유다. 이 책에 소개되는 주요 분야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시대별 특징 △불교전래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전국 각지의 주요 사찰 △수행자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수행 모습 △각종 의례와 의식 △건축, 회화, 조각, 공예, 차문화, 용어 등이다.

## 인과 법칙 실천법 현대적 해석 강설

깨달음의 실천

성엄선사 지음 | 오윤석 옮김  
해조음 펴냄 | 1만5천원



이 책에서 저자는 <금강경> 사상을 '마음의 생태학' '자아의 승화' '사회의 정화' '복해자재'의 네 가지 핵심 주제로 파악해 해석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가꾸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회를 변화할 것이며, 어떻게 인과 법칙을 복덕과 반야로 승화시켜 대승의 서원을 실천할 것인가를 현대적 안목과 해석으로 강설한 내용이다. 저자인 성엄 선사는 우리가 '소아(小我)' 적 자아를 극복하고, '대아(大我)' 적 자아를 극복하여 '무아' 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이름'으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란 '번뇌' 를 끊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번뇌를 만들지 않는 것, 즉 '번뇌가 생기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수행과 깨달음은 '이기적 자아' 를 '자비의 작용' 으로 변화시키는데 있는 것이지, 그저 '이기적 자아' 를 극복하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무아의 실천은 '무아' 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런 점이 <금강경>을 통해 나타난 대승의 '자아관' 임을 역설한다. 저자인 성엄 선사는 <금강경>서 말하는 이타행의 공덕을 '복과 지혜' 를 통해 설명한다. 복과 지혜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으로 이 둘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 복만을 닦을 줄 알았지 지혜가 결핍되어서는 안 되며, 복의 닦음이 지혜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성엄 선사는 행상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주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에 대해 집착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지만, 동시에 노력해서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때에 생겨난 마음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모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 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해석은 <금강경> 핵심 경구인 '응무소주이생기심' 을 가장 현실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김주일 기자

##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양국)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양국)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롬바이 - 엘로라 / 아진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양무나트) - 인천

###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양국)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양무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이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아(시기리아성체) - 플룬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리엘리아 - 콜롬보 - 인천

\*장기일정은 항공사 및 호텔의 부속이인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김영근 | 사업자등록번호: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maru@maruts.co.kr

###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 ①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 ②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 ③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팀 포함
  - ④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 ⑤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 ⑥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 ⑦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 ⑧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 ⑨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 ⑩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팀,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敎聖地 지역 안내 ▶

- ①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 ②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 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 ③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능엄경/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 ④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 ⑤ 바이살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 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 ⑥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 ⑦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름뿔이 있는 곳.
- ⑧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 INDIA

Find what you seek

## Incredible India

## 한중일 불교 결사의 변천사 처음으로 규명

동아시아 열불결사의 연구

김성순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의 불교결사의 보편성과 차이, 그리고 그 실천의 변천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초의 저술이다. 불교결사운동이 동아시아불교사에서 갖는 의미나 지분에 비해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더군다나 동아시아라는 통합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연구는 없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동아시아 불교결사의 현상을 관찰해보면 결사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실천들은 설명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상실할 지라도,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의 교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동아시아 불교결사의 주요 실천으로서 아미타내영신앙, 참회의식, 경전신앙, 지계, 선정쌍수적 수행론 그리고 실천 배경이 되는 정도신앙의 교의로서 발법사상, 열불, 천태교단의 제종융합적 성격 등을 제시한다. 이들 교의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각자 서로의 근거가 맞물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지도자들의 역할과 구성원들의 열정, 그리고 조직의 운영방식이 잘 이루어지는 결사의 경우에는 독립된 교단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특히 모체가 되는 교단을 부흥시키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기존 불교가 그 본질을 잃고 부패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승려들이 결사 형식으로 새 수행기풍을 전파시키는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불교결사운동이 갖는 그 역동성과 진두내 이야기이다. 어느 날 경두와 아베는 산에서 아기 고라니 한 마리를 잡아 집에 데려와서 됐다. 경두가 아기 고라니를 열심히 보살펴 주는데, 어느 날 경두 아베에 게 돈을 빌려 준 빚쟁이와 그 아들이 나타나 경두의 아기 고라니를 갖고 싶어 한다. 경두 아베는 빚쟁이에게 고라니를 보내지만 얼마 되지 않아, 고라니는 비실비실 아픈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 경두는 다시 돌아온 고라니에게 '우리'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돌보지 않던 고라니는 하늘나라로 떠나 버린다.

이 책은 불교신론 신촌 문예 동화 부문에서 당선된 작품들을 모은 책이다. 김미정의 <꿈돼지 다르마>는 2012년에, 박성주의 <못난이 엄마>는 2010년에, 정경숙의 <우리 아빠>는 2011년에 각각 당선됐다.

직 분석, 교의보다는 결사 구성원들의 실천에 집중했다. 동아시아 불교결사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지향을 공유하는 이들끼리 연대성의 기반 위에 동일한 신앙과 실천 약속을 맺고, 주기적으로 집회와 수행을 함께하는 신앙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정도왕상을 목표로 하는 아미타신앙을 실천했던 열불결사를 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동아시아 열불결사의 수행론은 화석화된 전통으로 계승돼 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다른 교의와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 새 형식과 내용들을 채워가는 유기적 생명력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열불결사는 교단의 부흥, 기존 교단의 위기에 맞서는 개혁의 의지, 새 신앙이나 수행론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주로 결성돼 왔다. 따라서 열불결사의 집회에서는 교단 내의 정통 수행론을 고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원 내의 법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새 수행론이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 실제로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수행론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던 승려들 대부분이 결사활동을 지도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을 구성하는 다섯 결사는 모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아미타신앙결사를 대표할 수 있는 열불결사들이며, 각각 아미타정도왕생이라는 구원관에 근거하면서 자신들만의 특색 있는 수행론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아미타신앙결사의 공통적인 수행론이라 할 수 있는 열불을 기반으로 하여, 건불(연산 백련사), 영강(이십오 삼매회), 참법과 수계회(사명지리와 자운준식의 천태결사), 지계와 열불(모자원의 백련사), 경전 독송과 배포(원묘요세의 백련사) 등으로 각 결사마다 주요 수행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모든 결사 대승불교 교의 바탕

### 성공적 결사는 독립 교단으로 성장

본서에서는 정도왕생이라는 동일한 지향을 가진 열불결사들의 수행론이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원인과 그 배경에 대해 고찰했다. 먼저 서술의 대상이 된 각 결사들을 시대 순으로 배열하고, 지도자 승려가 결사의 주요 수행론을 채택하고 구성원들의 수행 역량에 맞추어 정비해나갔던 과정과 배경을 추적했다. 또한 전 시대의 결사에서 실천되었던 수행론과 후대의 재정비된 것 사이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비교해 보는 작업을 통해서 동아시아 열불결사의 수행론의 전개 양상과 그 수행론 안에 내재된 재해석의 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김주일 기자